

일반 논문

## 냉전과 종교

: 2차대전 후 에큐메니즘 확산과 미국교회,  
동아시아 '자유 모럴' 구축\*

고지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냉전 형성기 세계교회 에큐메니즘 확산 과정에 미국교회 중심으로 적극 기획된 '자유 모럴' 개념이 동아시아 탈식민·혁명과정 및 한반도 극우 냉전 형성에 미친 영향을 종교 지정학적 관계로 접근하였다. 연구는 세 차원에서 냉전 형성기 '자유 모럴'의 지정학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첫째, 2차대전 종전기 미국 연방교회협의회(FCC) 중심으로 제기된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 논의들을 '자유모럴' 형성 관계로 살펴 보았다. 자유세계 기동인 기독교, 그리고 미국교회가 구상한 '정신적·도덕적 세계=자유' 등식은 냉전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세계를 선과 악, 자유와 독재,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 블록을 승인하는데 시민적·종교적 당위를 제공했다. 둘째, 2차대전 후 아시아 전역에 걸친 탈식민화 과정, 독립과 혁명 과정은 구체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독교에 대한 저항 및 전통 종교로의 복귀, 아시아 민족주의, 급진적 사회개혁 등이 포함된다. 식민지·선교지 관리자로서 서구교회는 기존 선교관계(Parenting System) 재조정 과정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275>

\* 이 글은 2022년 8월 24일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이 주최한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으로 부족한 글을 다듬고 세우는 데 도움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에 서구 '자유 모럴'에 기초한 '새로운 아시아 New Asia' 구상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급진 혁명성에 대응했다. 구체적으로는 1949년 동아시아교회협의회(EACC) 창설에서 공산혁명 방어 목표가 제시된다. 셋째, 연구는 2차대전 이후 한국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수용된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이 분단과 전쟁을 경험한 한국교회 접촉면을 자유 굴절관계로 접근했다. 냉전기 자유세계 질서원리인 '자유' 개념이 한반도 분단 지형에서는 극우 정치이념으로 굴절 수렴되는 개신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2차대전, 에큐메니즘, 자유모럴, 미연방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동아시아교회협의회, 한국전쟁과 극우반공

## I. 들어가며

이 글은 2차대전 이후 세계교회 에큐메니즘의 확산 과정에 '본원적 자유' 개념이 동아시아 및 한반도 냉전 이념 형성에 미친 영향을 냉전적 자유 구축 관계로 접근하였다.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종교 근본주의 정치가 강화되는 오늘 세계 현실에서 종교의 냉전성 탐구는 시의적절한 과제이다.<sup>1)</sup> 2차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 구축된 국제연합(UN)과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인류의 삶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토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해 왔다는 점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신기원을 이루었다. 국제연합과 세계교회협의회 창설과정에서 미국교회가 개발한 이상들(ideals)이 냉전 이념 형성에서 '자유'의 진폭을 구성하는데 주효했던 점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자유세계(Free World)의 기둥인 기독교(Christianity), 그리고 미국교회가 제공한 '정신적·도덕적 세계=자유' 공식은 냉전기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세계를 선과 악, 자유와 독재, 민주주

1) 이 글에서 '종교'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개신교 the Protestant'를 의미한다.

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 블록으로 승인하는데 종교적·시민적 당위를 제공했다.<sup>2)</sup> 1948년 9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1차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주제 ‘세상의 무질서(Disorder)와 하나님의 계획(Man's Disorder and God's Design)’에서 무질서(Disorder)란 1,2차 대전을 겪은 서구적 성찰이자 ‘신의 질서(God's Order)’를 새로운 세계질서(New Order) 안에 구현하고자 한 기독교적 표현이다.<sup>3)</sup> 냉전 초기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새로운 세계질서’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장로교인이자 정치인 존 포스터 덜레스(J.F. Dulles)와 정치신학자이자 사회철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가 깊이 개입된 것에서도 냉전기 미국 중심의 현실정치와 종교 이상의 결합을 고려할 수 있다.<sup>4)</sup>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주제이다. 근대 이후 에큐메니즘의 확산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국제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1920~1930년대 다양하게 출현한 세계교회 기구들-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생활과 봉사(Life and Work)-는 2차대전 직후 연합국 주도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로 단일화된다. 이후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은 냉전의 자장 안에서 세계 선교를 목표로 ‘기독교 복음’의 현장화(contextualization)를 역동적으로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교회는 냉전의 대립 요소들-

2) Dianne Kirby, “introduction,” *Religion and the Cold Wa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2).

3) Report of Section III,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 edited by W.A. Visser 't Hooft,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SCM Press Ltd, 1949), pp. 74-87.

4) 냉전형성기 존 포스터 덜레스와 라인홀드 니버의 미 연방교회협의회(FCC) 관계는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2008) 참조.

유신론과 무신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혁명과 개혁, 개인 자유와 사회경제적 정의 등에 조응해 현실 신학을 적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2차 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 미국교회협의회 주요 인물들이 새로운 세계질서 원리로 제시한 ‘정신적·도덕적 자유’원리들이 국제연합 창설과정에 자유이념 구축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독교 원리인 정신적 자유 원리가 인간 본성적 자유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자유세계 보편원리로 주조되는 냉전 초기 이념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아시아 지역의 역동성(Dynamism)은 서구교회 관찰자들로부터 ‘급진적 혁명성’으로 인식되었다. 전후 아시아 전역에 걸친 탈식민화 과정, 독립과 혁명 내용에는 구체제, 제국주의로 상징되는 기독교에 대한 저항과 전통 종교로의 복귀, 아시아 민족주의, 급진적 사회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5)</sup> 아시아 지역의 독립성·혁명성에 대해 서구교회는 기존 선교·피선교 관계(Parenting System)의 재조정은 물론 혁명 과정과 내용의 승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새로운 아시아 New Asia’구상을 요구받는다. 에큐메니컬 세계 선교 관점에서 ‘새로운 아시아’ 구상에는 2차 대전 이후 동서 이념 확장에 따른 공산혁명 방어 목표가 중요했다. 이 연구는 2차대전 이후 아시아 독립·혁명 과정에 서구교회가 직면한 선교 전략의 전환, 새로운 과제 설정에서 ‘자유 모럴’에 기초한 아시아 구축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독립지역에 대한 새로운 지역 관리 기구 논의들, 이 연장에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이후 서구의 ‘자유 모럴’을 토대로 탄생한 동아시아교회협의회(EACC) 형성을 아시아 혁명성에 대한 종교적·정신적 승인 관계로 접근하였다.

마지막 지정학적 요인은 냉전 형성기 극동 한반도와 세계교회의 접촉

5) “The Churches in the Asian Context,” Rajah B. Manikam eds., *Christianity and the Asian Revolution* (NY, 1954).

면이다. 19세기 미국 근본주의 보수신학을 토양으로 성서문자주의, 이원론적 타계주의 등을 주요 특징으로 성장해 온 한국 개신교는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를 거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냉전 반공주의, 친미주의가 혼합된 극우 이념을 공고히 했다.<sup>6)</sup> 연구는 2차대전 이후 한국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이 한국교회 근본주의 토양과 접촉면에서 발생한 균열 현상들을 ‘자유 굴절’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냉전 형성기 자유세계 이념 원리인 ‘자유 모럴’은 한반도 분단지형 안에서 극우정치와 접촉과정에서 에큐메니즘 본래의 ‘인간 자유’ 개념이 자유 반공으로 굴절 수렴되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차대전 전후 처리 시기, 그리고 1948년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전후 시기로 한정해 냉전 형성기 에큐메니즘 확장에 따른 ‘자유이념’ 구축과정을 동아시아 종교 지정학으로 검토하여 1950년대 이후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후 시기를 포함해 냉전기 한국 에큐메니컬 사회운동의 외연과 자유주의적 한계 요인은 향후 진전된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

6) 이 글에서 ‘한국교회’는 한국개신교를 통칭하였고 필요한 경우 한국장로교, 장로교단 등 교단명을 특정하였다.

## II. 2차 대전 후 미국교회협의회, 에큐메니즘 그리고 ‘자유·세계질서(World Order)’ 논의들

건국기 기독교로부터 자유와 평등의 국가 상징, 신념체계(faith symbols)를 세워 온 미국은 2차 대전 후 ‘세계 지도자(world leadership)’ 위상을 세워가는데 종교로부터 도덕적·정신적 신념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남북전쟁 종결 후 다교파주의를 표방했던 미국개신교는 1908년 필라델피아에서 32개 개신교 교파·교회들의 연합체인 연방교회협의회(Federal Council of Churches, FCC)를 결성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문제들-노동, 이주민 노동자, 도시빈민, 실업-에 대해 교회적 대응을 논의해 왔다.<sup>7)</sup> 미 연방교회협의회 결성 배경에는 침례교 신학자이자 목사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1861~1918)가 1907년 발표한 『기독교와 사회위기 *Christianity and the Social Crisis*』와 그의 사회복음운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8)</sup> 라우센부쉬를 필두로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복음운동은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개신교가 청교도적 근본주의에서 진보적 근대화, 현대화의 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 신학의 현대화는 1920~193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전개된 근본주의와 현대주의(Modernism) 논쟁 결과 소수 근본주의 계열의 분리와 주류 현대주의 구도로 재편되었다.<sup>9)</sup> 2차 대전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교회

7) 이 글에서 ‘미국교회’는 별도의 신구 구분이 없는 한 미국개신교를 의미하며 기구적으로 ‘미연방교회협의회’, ‘미국교회협의회’,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은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8) <https://www.christianitytoday.com/history/people/activists/walter-rauschenbusch.html>; <https://www.britannica.com/event/Social-Gospel> 등 참조.

9) 존 피츠미어 지음, 한성진 옮김, 『미국장로교회사』(CLC, 2004); 마크 A. 놀 지음, 최재건 옮김, 『미국·캐나다 기독교 역사』(CLC, 2005) 등 참조.

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 구상에 도덕적·정신적 신념을 제공하는데 집중했다(Moral Building). 트루먼 행정부에서 구축된 냉전 초기 구조물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미소 관계, 극동에서의 미국 정책, 유엔 정책 등에 기독교 원리들을 적용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은 냉전기 종교정치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다.<sup>10)</sup>

냉전 형성기 미국의 대외정책을 종교 관계로 분석한 윌리엄 인보덴(W. Inboden)은, 미국의 첫 냉전 대통령 트루먼의 봉쇄전략을 종교전쟁의 속성으로 분석했다.<sup>11)</sup> 그는 트루먼의 세계관에서 2차 대전 후 갈등 본질을 “하나님과 도덕(God and morality)을 믿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대결”로 보았다. 이 대결에서 소련의 무신론, 그리고 소련에 의해 지배되는 무종교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세계 종교 국가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sup>12)</sup> 『종교와 냉전 Religion and the Cold War』의 편집자 다이언 커비(Dianne Kirby)는 냉전 초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대결과 분쟁의 성격을 미국 종교와 소련 무신론의 구도로 설명하고 소련 공산주의를 ‘악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 영적 가치가 없는 세계, 신이 없는 세계로 승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출신 배경, 정당, 종교 성향에 따라 신학적 근본주의·현대주의(자유주의) 등 친소 성향을 달리하면서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적 이상을 위해 종교 신념을 활용한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에 1·2차대전 이후 미국개신교 내부는 근본주의와 복

<sup>10)</sup>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Message and Findings*, the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 (Ohio Cleveland, March 8-11, 1949), p. 5.

<sup>11)</sup> William Inboden, *ibid*.

<sup>12)</sup> *ibid*, p. 107.

<sup>13)</sup> Dianne Kirby, “Preface to the Paperback Edition,” *Religion and the Cold War* (Palgrave Macmillan, 2002), p. 6.

음주의, 현대주의(자유주의) 등 신학 입장에 따라 양립 불가능한 측면이 컸다. 2차 대전 후 미국개신교 내에서 에큐메니컬 신학운동(ecumenical movement)을 주도한 그룹은 미연방교회협의회(FCC)이며 1950년 이후 FCC가 초교파로 확대 개편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SA)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상적으로는 2차대전 전후 독일 주류신학인 신정통주의(Neo-orthodoxy, 일명 ‘위기의 신학 theology of crisis’, 칼 바르트 중심) 계열과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Christian Realism)’ 등이 주류를 형성했다.<sup>14)</sup> 미연방교회협의회(FCC)는 1945년 국제연합(UN) 창설과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창설과정에서 ‘자유’개념 주조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1942년 3월 오하이오 델라웨어에서 미 연방교회협의회(FCC) 주최로 열린 「정의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기초 연구위원회 The Commission to Study the Bases of a Just and Durable Peace, 정의평화기초연구위원회」는 유엔 현장에 반영할 기초 원칙들을 숙의했고 이듬해인 1943년 회의에서는 기독교 원리에 기초한 정치 의제들을 숙의했다.<sup>15)</sup> 2차대전 종전을 앞둔 1944년 8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는 연합국의 유엔 창설 회의로도 유명한데 현재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1945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제2회 미연방교회협의회 국가연구컨퍼런스(National Study Conference)가 델라웨어 협의회에서 논의된

14) 2차대전 이후 라인홀드 니버의 정치사상은 1930년대 디트로이트 노동자 문제에서 출발한 그의 사회복음주의, 그리고 미국사회당 활동 이력에서 냉전 현실을 수용하는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해 가는데, 이 시기에 쓰여진 그의 저서 『신앙과 역사 Faith and History』(종로서적, 1983)에서 대략 확인이 가능하다.

15) 1942년 3월 열린 미연방교회협의회 ‘정의평화기초연구위원회’의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1945년 대회가 2회 개최인 것으로 볼 때 앞서 열린 대회는 1회 대회로 추정되며 의제는 연합국의 국제연합(UN) 창설 논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이상들을 ‘덤바턴 초안’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하고 있다.<sup>16)</sup> 연방교회협의회 국가연구컨퍼런스(National Study Conference)를 주도한 인물은 「정의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기초연구위원회」 위원장 존 포스터 덜레스(J.F. Dulles)이다.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정의평화기초연구위원회’의 산출보고들은 냉전 초기 미국의 대외정책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권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고안들은 민주주의의 현대적 모델을 정당화하고 미국의 국가적 운명과 세계질서 구축 내러티브를 강화시킬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946년 미 연방교회협의회 기구 「국제사법친선부 the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and Goodwill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주최로 열린 제2차 “교회와 세계질서를 위한 국가연구컨퍼런스(the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는 「교회와 세계질서(The Churches and World Order)」를 채택해 “현대 국가들은 유엔 헌장 준수에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에 반영할 세계적 수준의 영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sup>17)</sup>

<sup>16)</sup>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ibid*, pp. 20-21. 1, 2차 국가연구컨퍼런스(National Study Conference) 관련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덤바턴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와 관계된 점에서 ‘유엔 헌장’ 속어로 추정된다.

<sup>17)</sup>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The Churches and the United Nations,” *ibid*, p. 27. 이 결의문에서 ‘세계정부(world government)’의 정확한 의미는 제시되지 않아 당시에도 논의를 일으켰다. 미국교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유엔’이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엮는 유일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정부 기획은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접근한다. 보고서는 현 수준에서 국제사회 협상과 결정이 가능한 유일 기구(즉 유엔-논자)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 가능한 신속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 경제 기구들을 포함한 인간 복지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유인 기구들의 신속한 확대와 개발, 2. 복지와 평화 정착 증진을 위해 설계

교회는 유엔의 건설적 과제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세계적 범위에서 협조해야 한다. 인류가 현재의 혼란과 전쟁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적 제도들을 ‘도덕 질서’에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도덕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적 본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 선과 악에 대한 공통의 표준을 가질 때 가능하다. 기독교가 기여할 분야가 바로 이것이다. 도덕 질서란 현대 독립 국가들이 정의와 질서, 인류애로 상호 연관성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 방향에서 미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sup>18)</sup>

위에서 선언은 유엔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영성 본능에 기초한 교회의 도덕 질서 역할을 세계선교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언은 2차대전 후 국제사회 현안들-미소 긴장, 서유럽 재건과 동유럽 독립 국가들의 공산화,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독립·혁명운동 등에 도덕 원칙에 기초한 세계질서 구축을 주장했다.<sup>19)</sup> 여기서 기독교의 도덕 원칙이란 인간사회 질서와 관련된 근본적이고 영원한 질서 즉 신의 질서를 전제로 한다.<sup>20)</sup> 현실에서 도덕 원칙의 적용은 ‘자유’ 시스템의 확대 문제로 제기된다. 1949년 3월 8-11일까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연방교회협의회 제3차 “교회와 세계질서를 위한 국가연구컨퍼런스(the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가 “미국적 힘의 도덕적 사용(The Moral Use of American Power)”을 주제로 열렸다(이하, 클리블랜드 대회).<sup>21)</sup> 대회 의장은 윌리엄 스칼렛

---

된 지역 위원회들의 구성 등이다. *ibid*, p. 28.

18)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Some Next Steps in the Areas of Christian Action,” *ibid*, pp. 29-30.

19)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The Churches and American Policy in Europe, *ibid*, p. 31.

20) *ibid*, pp. 31-32.

21) the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and Goodwill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Message and Findings*, the third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 March 8-11 (1949), p. 5.

(William Scarlett, 국제사법친선부 위원장)이 맡았으며, 연방교회협의회 정책위원회(the Department's Committee on Policy)의장 존 포스터 덜레스가 기조연설을 맡았다.<sup>22)</sup> 클리블랜드 대회 개최 목적은 미국 대외정책의 중요 의제들-북대서양조약기구, 미소 관계, 미국의 극동 및 유엔 정책 등을 평가하고 기독교 관점에서 연관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시기 FCC 정책위원장 존 포스터 덜레스의 자유·독재 이분법적 세계관은 명확하다. 그는 현대 세계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 의제를 인간 자유 침해로 독해하고, 자유 세계의 불완전한 요소들, 예를 들어 식민성, 억압과 약탈, 인종주의, 대중심리 등에 기독교 사회윤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임을 주장했다.<sup>23)</sup> 클리블랜드 대회의 주요 논객 라인홀드 니버는 가능한 한 도덕법(moral law)과 국제기구(UN)을 통한 자유 영역의 확대를 주장했다.<sup>24)</sup> 대회가 채택한 세 개의 주요 보고서는 1)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덕적 책임과 미국의 힘, 2)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 3) 종교 자유에 관한 메시지 등으로 섹션 별 연구 보고서가 권고안으로 제출되었다(하단-주요인물).

- 세계질서를 위한 교회의 지도원칙(Guding Principles of the Churches for World Order)  
-의장: Justin Wroe Nixon, Vernon Holloway(총무)/J.D. Bragg(의장), Elmer F.J. Arndt(총무)/Sidney E. Sweet(의장), J.H. Marion, Jr.(총무)
- 교회와 유엔(The Churches and the U.N)  
-O. F.Nolde, Miss Mabel Head
- 교회와 미국의 유럽 정책, 특별히 서유럽·소련 긴장관계(The Churches and the American Policy in Europ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Soviet-

22) *ibid.*

23) William Inboden, *ibid.*, p. 43.

24) *ibid.*

Western Tensions)

-B. Oxnam, Harlie K. Smith(총무)

- 교회와 미국의 극동정책(The Churches and American Policy in the Far East)

-Eugene Barnett, Rowland M. Cross

-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교육과 행동의 교회 전략<sup>25)</sup>

-Paul Gebhart(제1의장), Hubert C. Noble(제2의장), Paul C. Payne(제3의장).

보고서를 통해 미국교회의 세계독해를 확인해 보자. 2차 대전 후 세계 역사는 미국을 물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로 등장시켰으며 권력과 힘의 사용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통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요해졌다. 미국적 힘의 바른 사용은 기독교 신앙(Christian faith)에 기초한 도덕적·영적 통찰(the moral and spiritual insight)이 요구된다.<sup>26)</sup> 미국은 평화를 원하는 자유세계로부터 영토 정복욕이 없는 나라로 신뢰를 받고 있다. 자유 진영 국가들은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 리더십 없이는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계속되는 독립투쟁과 사회 혁명은 서구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를 의미한다. 양차 대전과 경제 대공황은 생산·분배 메커니즘에서 서구의 통제 불능을 보여주었다. 한 시절 서구 민주주의가 자유, 평등, 박애의 역동성을 추구하고, 산업혁명과 정치적 자유에서의 위대한 시도들을 거쳐 왔으나 새로운 실험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미국 리더십의 실질적인 가치는 세계 도처에서 현저한 정치·경제적, 인종적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의 상

<sup>25)</sup> *ibid.*, p. 6 채택된 세 개의 주요 메시지는 3월 15일 열린 미연방교회협의회 실행 위원회 승인을 거쳐 회원 교회에 배포되었다.

<sup>26)</sup> *ibid.*, p. 7.

상력과 지지를 사로잡아야 한다.<sup>27)</sup> 미국은 빈곤의 철폐, 인간 삶의 물질적 조건을 창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은 자유 조건에 경제질서로 확장된 사회정의(social justice)까지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은 인종, 신념의 차별 철폐, 기회의 평등 등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될 때 가능하다. 공산주의 박테리아는 굶주림, 질병, 좌절, 영혼의 굶주림 등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기생한다. 사회적 불의는 무력으로 억제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 미국교회와 미국의 주된 관심은 사회정의의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sup>28)</sup>

현대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신뢰를 받으려면 정의롭고 역동적인 신념 체계(신앙)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신념 없이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없으며, 정의로운 신앙에 기초한 정책 지도 방향에서 벗어나 미국의 물질적 힘에 의존된 행사만큼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 불안에 평온한 용기를 주는 신념체계를 세워야 한다. 불확실성과 혼란으로 운명지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신(=하나님)의 지배를 선언해야 한다.<sup>29)</sup>

위에서 미국교회는 박테리아로 규정된 공산주의 확장에 기독교 신념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지배를 선언한다. 1947년 9월 바르샤바에서 스탈린이 주도해 <평화연맹>이 조직된 지 1년 후 1948년 8월 23일~9월 4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1차 총회가 44개국 147개 교회, 35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sup>30)</sup> '세상의

27) *ibid*, p. 9.

28) *ibid*, p. 32.

29) *ibid*, p. 14.

30) 1차 총회 참가자 351명 중 270명은 성직자이며 81명이 평신도이다. 1차 총회 명예의장은 현대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지도자인 존 모트(John R. Mott)이며 6명의 공동 의장단으로 구성되었다. 공동 의장은 마크 보그너(Marc Boegner, 프랑스), 조프리 피셔 캔터베리 대주교(the Archbishop of Canterbury, Dr. Geoffrey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Man's Disorder and God's Designe)'을 주제로 열린 1차 WCC 총회 참가자들은 영미 교회가 135명(미국-79명, 영국-5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2차대전 후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 대표들도 참가했다. 동유럽의 경우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대표 외에도 그리스정교회 대표도 참가해 명실공히 교파를 초월한 최초의 국제 종교회의의 성격을 띠었다. 다수 영미권 교회와 공산권 대표의 참여는 향후 WCC 이념과 방향에서 냉전이념이 잠재적 논쟁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총회 주제인 '세상의 무질서(Disorder)'와 '책임사회(The Responsible Society)' 개념에서 '자유' 요인을 확인해 보자.<sup>31)</sup> WCC가 이해한 '무질서(Disorder)'는 인간의 본성적 죄를 강조한 기독교 세계관, 사회관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상의 세속권력, 정치 공동체에 대한 충성(복종)으로 대체한 것을 '무질서(Disorder)'로 단언한다.<sup>32)</sup> 현대 사회는 두 거대 요인이 인류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권력 집중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이 인간 본래의 자연적 삶을 대체, 파괴하는 현상이다. 권력 집중은 다시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 경제적 공산주의 시스템 모두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개인과 집단의 탐욕, 자만, 잔인함을 조장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 존재 양식을 약화시킨다.<sup>33)</sup>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이 인간 자유를 침식할 것에 대해

---

Fisher, 영국), 게르마노스(the Archbishop Thyateira, Dr. S. Germanos), 티 씨 차오 박사(Dr. T.C. Chao, 중국), 얼링 에이템 읍살라 대주교(the Archbishop of Upsala, Erling Eidem, 스웨덴), 옥스남 성공회 주교(Bishop G. Bromley Oxnam, 미국) 등이다. Edited by W.A. Vissert 'T Hooft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eld at AMSTERDAM, Aug. 22nd-Sep. 4th,1948 (London: Scm Press, 1949), pp. 216-217, pp. 236-267.

31) 1차 대회는 총 4개 분과, 4개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무질서'와 '책임사회' 개념은 3분과(주제,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에서 확인된다.

32) Report of Section III,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 *ibid*, p. 74.

보고서는 ‘인간 고유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1차 총회의 두 번째 주제어 ‘책임사회 The Responsible Society’ 개념이 도출된다. WCC가 제시한 ‘책임사회’란 ‘자유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신과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 현실사회에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은 인간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정의와 시스템의 구축으로, 적극적으로는 정치체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구성원이란 점에서 현대 기독교 사회윤리의 적극성을 구성한다. WCC 책임사회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 보장 및 유지를 박탈하는 체제, 국가 또는 사회는 인간 구원을 위한 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악의 존재’이다.<sup>34)</sup>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의 참전과 7월 13일 토론토에서 발표된 WCC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의 성명서 “한국 상황과 세계질서(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는 WCC의 ‘인간 자유’ 강조와 책임사회론이 반영된 실례이다.<sup>35)</sup> WCC 성명서는 1) 유엔 한국위원단 조사 근거로 북한의 남침 규정, 2) 즉각적인 휴전 협상 권고, 3) 유엔군 통제 하에 소련과 새로운 협상 주도 등 유엔 역할을 강조해 이 시기 미국교회협의회회의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성명서는 한국전쟁 발발 배경을 2차대전 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전성, 취약성의 근거를 빈곤, 억압, 식민지 피억압 계층의 울분, 인종과 종교, 국적 차별, 국가 갈등 등 약한 고리들에 대한 전체주의의 공격으로 규정함으로써 냉전적 대립 구도를 반영했다.<sup>36)</sup>

33) *ibid*, pp. 75-76.

34) *ibid*, p. 77.

35) WCC 성명서 발표 경위와 발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김홍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4호 (2001)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36) The Korean Situation and World Order, approv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July 13, 1950, Toronto Canada. 성명서는 WCC 중앙

미 연방교회협의회(FCC)가 확대 개편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UA)’는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27-30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사법친선부 주최로 제4차 “교회와 세계질서를 위한 국가연구컨퍼런스(the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가 열렸다. 개회에 앞서 회원들에게 보낸 공식 초청 메시지는 3차 대회와 비교해 냉전 어조가 만개한다. 메시지는 1953년 세계 정세를 전제 정치, 폭증하는 민족주의, 저개발 국가들의 소요 등으로 진단하고 자유 진영(free world)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강조했다.<sup>37)</sup> 대회는 John C. Bennett, William H. Beahm, Prentiss Cooper, Bishop Dun, Franklin D. Elmer, Ward Nichols, Walter W. Van Kirk, O.F. Nolde, Bromley Oxnam 등 미국교회 주요 지도자, 신학자들이 의장단 및 임원진을 구성했고, 미 국무부에서 3인, 해외작전관리국(the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에서 담당자 1인을 파견해 미국교회 논의들을 청취했다.<sup>38)</sup> 대회 주제인 ‘기독교 신앙과 국제적 책임 Christian Faith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는 전 지구적 현실로 확장된 미국교회의 시야를 잘 보여준다. 4차 대회가 던진 핵심 질문은 ‘냉혹한 시대에 미국은 강대국의 책임감/지도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힘의 대가를 지불할 의지가 있는가.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세계 현실에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지리적 고립주의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미국교회는

---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북한의 남침 규정’이 45대 2로 반대표가 있었다. 자료는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한국전쟁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22-23쪽에 수록되어 있다.

<sup>37)</sup> “Christian Faith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Report of the Fourth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 Cleveland, Ohio October 27-30 (1953) p. 7.

<sup>38)</sup> *ibid.*, p. 6. 380명 대표와 50명 자문이 참석. 51명의 읍저버, 6명의 독일인 포함. 대표단과 자문들은 26개 기구, 11명의 고문은 캐나다 연합교회 출신. 430명 중 243명(56.5%)이 성직자이고 187명(43.5%)가 평신도로 구성되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등 현대 미국정치가 지향해 온 핵심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sup>39)</sup> 대회는 총 5개 예비분과에서 사전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이 당면한 주요 대외정책들에 기독교 원리를 적용한 권고안을 제출하였다.<sup>40)</sup>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통해 4차 대회의 이념을 확인해 보자. 첫째, 보고서는 미국이 당면한 두 개의 거대한 현실을 강조한다. 하나는 아시아와 같이 방대한 지역에서의 혁명적 격변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에트와 자유세계 간의 대립이다. 두 현실은 개별적이면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의 현실을 절대시하거나 다른 현실의 단순화를 경계할 것을 주문한다. 이 두 현실에서 미국이 즉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는 공산주의(전체주의) 확장 저지와 3차 세계 대전의 억제이다. 특히 전체주의 폭정과 전쟁 위협의 억제는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 정치·군사력을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특히 보고서는 소비에트의 확장 저지를 위해 정치적·영적 자유의 확대를 권고한다.<sup>41)</sup> 군사력은 필수적이나 인간에게 본질적인 조건은 정치 경제적 건강(Health)과 사회적 영적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다.<sup>42)</sup> 소비에트 확장을 저지하고 세계 자유와 정의 조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유세계, 특히 미국 국민의 정치, 경제적, 도덕적 책임감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2차대전 후 미국의 국가적 위상 확대를 직시하면서도 미국교회가 자유세계 책임 국가로서 미국의 권력을 오용 또는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한다.<sup>43)</sup>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해

39) *ibid*, p. 5.

40) *ibid*, pp. 5-6. 제4차 협의회-예비분과 위원회 및 의장은 다음과 같다. 1분과-기독교와 국제 책임/Angus Dun, 2분과-미국과 유엔/Mrs. Edith Sampson, 3분과-미국과 대외경제정책/Willard Thorp, 4분과-미국과 저개발지역/Emory Ross, 5분과-미국과 집단안보/F.P. Graham

41) "Christian Faith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bid*, p. 11.

42) *ibid*,

보고서는 인류의 물질적·영적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세계적 의존·협력관계에서 미국의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sup>44)</sup> 세계적 상호 의존성 강화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과 협력으로 저개발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이 프로그램은 군사 지원과 별개로 진행한다).<sup>45)</sup>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운동의 원인을 저개발로 인한 반란이자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청산 반응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개발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현대 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고한다.

1. 기독교적 삶의 궁극적 의미와 방향 제시. 세계와 국가, 지역과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을 제시.
2. 해외선교 지원 및 재건기관, 선교위원회 지원 확대
3. 해외 선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기술자의 헌신성
4. 교회는 선교, 정부, 민간에서의 해외 기독교 봉사의 필요성 제고
5. 정치적, 경제적 식민주의의 점진적 철폐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도자 양성 강화. 특히 태평양 지역과 류큐 열도에 대한 신탁관리. 유엔 신탁통치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
6. (이 섹션에서 제출한 인종차별에 대한 권고,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
7. 기술 협력은 군사 지원 및 안보 목표와 별개로 선의의 목적으로 진행. 인간 존엄성과 개인과 국가의 자유를 기반으로 지원.
8. 미국의 재정기여도를 높여 UN의 기술지원 확대 프로그램 지원.
9. 미국의 PointV 프로그램이 UN 프로그램을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10. 미국의 유엔 기술원조 프로그램은 장기간 계획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국들이 미국의 원조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함.<sup>46)</sup>

43) *ibid*, p. 12.

44) *ibid*, p. 14.

45) *ibid*, pp. 14-15.

46) *ibid*, pp. 31-34.

최종 결의안은 4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총 12개 항의 권고안을 작성해 미국교회협의회 총회에 제출되었다. 아래는 최종 결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1. 소련과의 협상-공산 세계와 달리 자유 세계는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 협상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국가적 기본 신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함.
2. 조약들 및 행정협정- a)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미국의 책임을 다하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함. b) 지속 발전하는 국제법에 기여하고 국제관계가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맡아야 함.
3. 기술지원-저개발 국가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도덕적 힘을 증가시키는데 기술 협력 및 경제 지원 및 개발 프로그램의 사용을 확대할 것.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중요성이 확대될 것.
4. 국제 재정 지원-기술 지원의 보완책으로 국제재정지원의 필요성 촉구. 특히 저개발지역 민간 및 공공 부문 자본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 급부. 유엔 경제개발특별기금을 교회가 승인할 수 있을 것.
5. 미국의 잉여 식품-미국은 식량농업기구(FAO) 및 기타 기관을 통한 세계 기아, 빈곤층 대상 생산과 분배 보장 노력 계속 갈 것.
6. 억압 민족 세계 억압 민족을 위해 유엔 현장의 '자치 향상 및 자유국가 발전을 위한 원칙들'을 일관되게 지원할 것. 재정 및 기술지원 제공, 국가지도자 훈련,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반 구축 제공. 특히 교회, 기업, 자원봉사기관들에서 개발 프로젝트 지원할 것.
7. 인종 차별과 외교정책- 공직, 교회, 고용, 정치적 견해 등에서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도덕적 지위를 약화시킴. 미국교회, 정부, 자선 단체 및 종교기관 등이 인종차별 요인을 철폐하는 것이 민주주의 유산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8. 보편적 균축- 하원 외교 위원회 상정된 상하 양원 동시 결의안 132호, "보편적 균축" 안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군비 예산을 국내외 개발자금

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9. 난민-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계속 협력. 유엔 난민 긴급 기금 확대할 것. 무국적 이주민 문제에 미국은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에 결정. 팔레스타인, 한국 및 기타 고등판무관 관할 외 난민은 미국이 가능한 한 유엔기관 통해 지원해야 할 것. 미국 내에도 동일, 공정하게 난민 수용할 것.
10. 1952년 이민국적법-1952년 이민 및 국적법의 제한 요인이 진전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 이민자 시민권을 존중하는 이 법안이 미국의 기본 원칙과 조화되도록 향후 수정되어야 할 것.
11. 중공과 유엔-유엔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한국의 침략 당사국으로 지정. 이 기소가 지속되는 한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이원화가 가능하며 필요시 미국교회는 도덕적 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본 국제사법친선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Goodwill)에 관련 문제 연구 검토하도록 요청. 미국교회는 정부가 유연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정책적으로 점진적 발전을 위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할 것.
12.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국경분쟁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요소. 미국의 확고한 지원하에 유엔의 긴장완화 노력과 교착상태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지원할 것 등<sup>47)</sup>

협의회 권고안은 세계 자유와 평화기구로 유엔 기능 강화와 유엔 현장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도록 미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전쟁 억제를 위해 유엔이 장차 효과적인 집단 안보기구로 발전하도록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sup>47)</sup> *ibid.*, pp. 42-45.

### Ⅲ. 전후 아시아 혁명과 EACC,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 New Asia”

1945~1950년대 말까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대부분 독립한 아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구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건설 과정을 의미하는 ‘아시아 혁명 Asia Revolution’을 통과했다.<sup>48)</sup> 1949년 중국 공산혁명의 승리는 아시아 혁명의 가장 큰 상징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2차대전 후 아시아 혁명은 450여 년간 유럽 팽창과 식민 지배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혁명은 반 서구운동이다. 가깝게는 19세기 제국주의 확장과정에서 서구교회와 선교·피선교관계(제국·식민)를 맺은 아시아 지역의 탈식민화 과정은 서구의 착취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와 대립한다. 반면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내용과 실현 수단은 식민 기간 습득한 양식과 기술들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다. 혁명의 목적과 방향이 구체제 복귀가 아니라는 점,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혁명이란 점에서 아시아 혁명은 진보성을 담지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혁명 내용에는 탈식민, 정치적 자유(계급해방), 경제정의, 사회적 평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교회·YMCA, WSCF, 국제선교협의회(IMC), WCC- 차원에서 아시아 혁명에 대한 접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독자성·특수성을

<sup>48)</sup> Rajah B. Manikam eds., *Christianity and the Asian Revolution* (NY, 1954); M. M. 토마스, 이장식 역, 『아시아 혁명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앞의 라자 마니카의 저서는 1952년 12.31~1953.1.8. 인도 루크나우(Lucknow)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에큐메니컬 연구협의회(the Ecumenical Study Conference for East Asia)’에서 제출된 아시아 보고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인정하면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방법적 논의들이 포함된다. 이 전환에는 몇 가지 중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는 지리적 광대성-남아시아(파키스탄, 인도, 네팔, 실론, 버마),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령 보르네오), 동아시아(중국, 홍콩, 대만, 한국과 일본) 등-만큼이나 문화, 전통, 인종, 계급, 종교 등 다양성·복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sup>49)</sup> 2차대전 후 아시아 다양성에 대한 승인에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탈식민과 과거청산 요구들, 급진적 사회혁명 운동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아시아 탈식민운동의 핵심에는 구체제로 상징되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저항, 전통 종교-비기독교 종교로의 회귀 등 아시아 민족주의 강화로 표상된다. 1947년 3~4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자왈할렐 네루(Jawaharlal Nehru) 수상이 인도네시아 독립투쟁을 적극 지지한 배경도 아시아 독립운동·민족주의의 한 형태이다.<sup>50)</sup> 계급적으로 아시아 혁명운동은 대체로 민족 내부 급진세력 또는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함으로써 구체제·서구교회와 밀착된 아시아 기독교 엘리트(대체로 우파 지식인들)에게 과거청산, 혁명운동은 기독교 세계의 부정과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sup>51)</sup> 또는 독립과 혁명을 지지하는 아시아 기독교인들의 경우 탈 서구운동, 급진적 사회운동에 경도될 가능성이 컸다.

선교 관계 재조정 또는 재형성 문제 역시 중요 과제로 대두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선교지 아시아 교회(Younger Churches)의 보전 문제, 지속적인 선교 확장 문제, 급진·혁명세력으로부터 피선교지·기독교 세력의

49) Preface, Rajah B. Manikam eds., *ibid.*

50) “The Social Revolution in East Asia,” Rajah B. Manikam eds., *ibid.*, p. 4

51) J.C. 베넷 저, 김재준 역, 『共產主義와 基督教』 (서울: 선경도서출판사, 1949), 12~27쪽; 리차드 쇼울, 김천배 역, 『革命과의 對決』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참조.

분리 보호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해 아시아 접촉면이 컸던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WSCF), YMCA 등이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아시아 역동성’, ‘젊은 교회’ 또는 ‘젊은 운동체’ 등의 슬로건으로 아시아 개발 훈련들을 전개했다. 1947년 IMC가 아시아 극동사무국을 정식으로 설치하고 인도의 마니캄(rajah B. Manikam)을 의장으로, 중국의 룡(s.c. leuing)을 서기로 임명했다.<sup>52)</sup> 반면에 1948년 출범한 WCC는 아시아 지역 전담 기구 출현에 회의적이었는데 서구교회(Parent Churches) 입장에서 아시아 에큐메니컬 지역 기구의 출현은 운영의 효율성, 지도력, 에큐메니컬 본래 보편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문제, 그리고 지역 헤게모니 강화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었다.<sup>53)</sup>

1948년 8월 세계교회협의회(WCC) 창설 후, 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관리 필요성이 적극 제기됨에 따라 1949년 12월 3-9일 태국 방콕에서 WCC 산하 지역 기구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기독교협의회(East Asia Churches Conferences, EACC)가 출범했다.<sup>54)</sup>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대회는 당초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직전의 공산혁명 여파로 방콕으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EACC 개최가 아시아 혁명 확산에 대한 에큐메니컬 선교 대응 모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회 참가국은 호주, 버마, 실론,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52) 안재용,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696호 (2016), 61쪽.

53) 한강희, 「토모혼에서 자카르타까지: 21세기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선교 신학의 주제와 이슈」 『선교와 신학』 제38집 (2016), 272쪽. 서구교회는 제네바 WCC 총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54) 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 *The Church in East Asia*, December 3-11 (1949), p. 2.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뉴질랜드와 호주가 포함되어 있고 12개국 교회협의회(NCC) 대표 35명이 참가했다. 이외에 덴마크, 프랑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 오키나와,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이 읍저버와 고문 자격으로 참가했고 첫 동아시아 총무로 인도의 라자 마니캄(Rajah B. Manikam)을 임명했다.<sup>55)</sup> EACC 창립대회 공식문서는 “전후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기독교회의 위치와 역할을 평가하고 아시아 지역 기독교 전파(복음 전도)를 위한 긴급 회집”을 목적으로 제시했다.<sup>56)</sup> 대회 보고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 의장 존 맥카이(John Mackay)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혁명이기 아무리 길다 해도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의 궁극적 승리를 증언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계승자들은 더 많은 부분에서 복음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계질서(world orders)가 해체된 시기에,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처럼 혼란기를 지나는 곳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구원적일 것이기 때문이다.<sup>57)</sup>

방콕대회에서 채택된 선언, “동아시아에서의 복음 선언(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East Asia)”은 복음의 본질을 “인간 조건과 관련된 현재적 요구와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했다.<sup>58)</sup> 기독교 현실주의에 기초한 복음 정의에서 이 시기 세계 에큐메니컬 시각을 잘 보여준다. “선언”은 서구적 이상들(ideals)-개인주의 가치, 경제정의, 정치적 민주주의-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낡은 전통을 대체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구축할 만

55) *ibid.*

56) *ibid.*

57) *ibid.*

58) The 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East Asia,” *ibid.*, p. 9.

큼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와 동력으로 재창조될 것을 강조했다. 이 연장에서 “선언”은 동아시아 현 조건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기독교 기반의 민주제도·가치 붕괴를 방어할 ‘정신적 동력 충족(The needed spiritual dynamic)’으로 보았다.<sup>59)</sup> 무엇보다 아시아 혁명성에 대한 서구교회의 급선무는 ‘공산주의 확산’을 방어하는 데 있다. 1949년 중국혁명 성공 이후 서구교회의 아시아 지역 방어론은 더욱 명확해진다.

..지역 전체에서 공산주의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동아시아는 극심한 경제적 부침과 그로 인한 고통, 자본주의 착취의 지역이었다. 공산주의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민족·인종운동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산주의에 의해 주창된 경제·사회적 정의 목표에 경도된 동아시아 일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운동과 결합하고 있다. 중국 교회에 일어난 일이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교회에도 일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sup>60)</sup>

EACC는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공산혁명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근본적으로는 공산혁명의 이상과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사이의 상대적 긴장을 구분해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현재 사회혁명이 진행되는 국가들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도덕적·종교적 기초(=이념)에는 개인의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인간의 자율적 사회적 참여 등이 인간 존엄성 보전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sup>61)</sup> EACC는 인간 자유의 본질은 종교의 자유로 규정하고 진정한 자유국가의 조건으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국가임을 강조했다.<sup>62)</sup> 아시아 독립 국가들의 헌법 기술에

59) *ibid.*

60) Rajah B. Manikam eds., *ibid.*, p. 219.

61) The East Asian Christian Conference, *ibid.*, pp. 6-7.

62) *ibid.*, p. 7.

종교 자유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을 토대로 유엔 헌장의 인권·자유 조항이 행동의 표준이 될 것을 촉구했다.<sup>63)</sup>

이러한 인식은 이 시기 미연방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의 인식과 매우 흡사한데, 중국 공산화 직후 미 연방교회협의회(FCC)는 “(전후-논자) 극동 지역이 세계와 평화롭고 자유로운 아시아를 이루려면 채워져야 하는 정신적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을 기독교가 채워야 한다”라고 하여 EACC와 정확히 동일한 인식을 보여준다.<sup>64)</sup> 미국교회 시각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독립 국가들의 출현과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 현상들은 새로운 동아시아적 현상의 서막을 의미한다.<sup>65)</sup> 아시아에도 무수히 많은 전통 종교들이 있으나 아시아 혁명의 역동성에 필요한 영적 방향(spiritual direction)을 제공해 주진 않는다.<sup>66)</sup> “새로운 아시아 new Asia” 건설, 그리고 아시아 공산주의 확산 방어를 위해선 군사적 대응 외에도 건국 이래 미국이 축적해 온 정신적 자산, 즉 ‘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sup>67)</sup>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위해 미국교회는 아시아인들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자유를 위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노력을 재확인해야 한다.<sup>68)</sup> 구체적으로는 유엔과 협력하에 인권 향상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 사회, 교육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특히 「유엔 아시아·극동 경제위원회(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와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아시아 지역 산업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제무역 증진 등을 개발해야

63) *ibid*, p. 8.

64) The executive committee of FCC, *The Churches and American Policy in the Far East*, December 6 (1949), p. 7.

65) *ibid*.

66) *ibid*.

67) *ibid*, p. 36.

68) *ibid*, p. 4.

한다.<sup>69)</sup> 세계교회 논리를 수용하면서 아시아 교회지도자들은 아시아교회의 독자성 속에 '자유' 시스템의 구체화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통합이다. 그리고 아시아 교회들이 통합된 예배를 드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연합기관들의 활동도 물론 중요하다. 30년 전에 서구는 아시아를 지배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는 자유로와졌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 자유로 더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는 이 원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sup>70)</sup>

이 시기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교회협의회가 아시아 혁명에 대한 '지적 이해(intellectual understanding)' 이상으로 아시아인의 마음, 빈민가 생활상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필요성을 촉구했다.<sup>71)</sup> 냉전 형성기 아시아 에큐메니컬 지역 기구의 출현과 '새로운 아시아' 제기, 그리고 '아시아 통합' 강조는 비기독교 문명이 절대 우세한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혁명을 방어하고 기독교 자유 문명의 유지 확산을 위한 필연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sup>69)</sup> *ibid*, p. 5.

<sup>70)</sup> "The Asian Situation as a Concern of Christians Everywhere," *Minutes and Reports of the Fifth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Lucknow(India), Dec. 31, 1952-Jan 8 (1953), p. 16.

<sup>71)</sup> *ibid*, p. 17. 아시아 혁명에 대한 지적 이해 이상을 요구한 인물은 M.M. 토마스이다.

#### IV. 한국전쟁 전후 한국교회 '반공 규율'과 에큐메니즘

한국 사회에서 '자유'는 두 가지 의미로 통용되어 왔다. 하나는 자유는 곧 '반공'의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본래의 '자유', 즉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시민적 자유 개념이다. 냉전 초기 미국교회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덕적·정신적 기초로 '자유 개념'이 구축되는 시기 한국 전쟁을 통과한 한국 사회는 반공규율사회로 전환했다. 한국전쟁기 이승만 정부(국가)와 한국개신교(종교)는 반공주의를 매개로 초밀착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냉전기를 통틀어(또는 탈냉전 이후까지) 한반도 이남에 반공=친미=자유민주주의의 시민종교를 형성시켰다.<sup>72)</sup> 신학적 배경(근본주의/자유주의), 또는 전쟁 경험의 강도에 따라 '극우'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쟁을 통과하면서 한국 개신교의 '자유=반공' 인식은 오랜 시간 일관되게 유지 되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본래 의미에서 '보편적 자유'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산업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민중·인권운동이 성장한 197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다시 냉전 형성기로 돌아가면,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을 수용한 그룹은 조선신학교(한국신학대학 전신) 계열이다. 이들은 1930년대에 이미 한국장로교 성경해석방법(비평적 성경관) 논쟁에서 선교사가 주도하는 근본주의 교리(성서 문자주의)에 대항했던 그룹이며, 해방 후 개방성을 이용해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개신교 최대교파인 장로교단이 1953년에 에큐

<sup>72)</sup> 한국사회 반공=친미=자유민주주의를 시민종교로 접근한 강인철, 『시민종교의 탄생-식민성과 전쟁의 상흔』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2018) 참조.

메니컬 지지계열의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와 반대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분열을 맞는다.<sup>73)</sup> 주목할 사실은 이 시기까지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개념 정립이 없었던 점이다. 일종의 개념 혼용으로 19세기 독일 주류신학인 ‘자유주의 신학’, 1차대전 이후의 ‘신정통주의 신학’, ‘현대주의(Modernism)’, ‘신신학’ 등 다양한 표현으로 혼용되면서 한국교회 근본주의 토양에 정통과 비정통을 가르는 균열원인이 되었다. 해방 직후 장로교 총회 직영신학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직접 원인도 에큐메니컬 신학운동을 반대하는 ‘신신학 논쟁’이었음을 고려하면 한국교회 근본주의의 배타성, 폐쇄성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독일 신학에 계몽이후 발전(Post-Enlightment development)이었으니 계몽의 격렬한 이성론에와 신조 치중의 정통주의에 대한 항의로 일어난 것이며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기독교 신학을 소위 신학문(New learning)의 다량 요소들과 조화시키려는 시도였다. 이것은 1806년에 슐라이어마허의 저서로 말미암아 개시되고 1918년 칼·뵘트의 로마서 주석으로 인하여 실세(失勢)하였다고 알려진다. 엄격한 정통신학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신정통 자체가 오히려 자유주의요, 이전의 자유주의로부터 얼마큼 우경(右傾)한 무엇뿐이다. 고로 19세기 자유주의는 20세기에서 다소 실소하였더라도 의연히 생존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74)</sup>

위에서 한국장로교 대표 인물 박형룡 박사의 현대신학 이해의 전제는 계몽주의 이후 신학 조류를 ‘자유주의’로 일반화하는 데 있다. 현대신학 조류에 대한 개념 혼재와 ‘정통·비정통’의 분리주의는 냉전기 한국교회

73) 한국전쟁 전후 한국장로교 분열 결과 대한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교 성립에 대해서는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서울: 선인, 2016), 제3장 2/3절 참조.

74) 박형룡, 「정통과 신정통」 『신학정론』 제2권 1·2호 (1950), 14쪽.

극우성 형성에 직접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 근본주의적 분리주의 풍토에서는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흐름에서 주도된 ‘보편적 자유’도 봉쇄될 가능성이 컸다. 직접적으로는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신신학’, ‘용공’, ‘세계단일교회’ 등으로 왜곡 수렴함으로써 한국교회와 WCC 관계 설정이 불가능했거나 국내 교단 상황에 따라 1960년대까지 탈퇴, 가입보류, 재가입 등의 현상이 반복되었다.<sup>75)</sup> 가장 큰 원인은 한국교회 배타적 교리주의를 ‘정통’으로 일관한 한국개신교 ‘극우성’과 이승만 정부의 ‘극우반공 정치이념’과 밀도 높게 결합함으로써 WCC=용공, 반공=자유이념을 구축한 점이다.<sup>76)</sup>

해방 후 한국전쟁기까지, 세계사적으로는 냉전 형성기 WCC와 한국교회의 접촉면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1948년 WCC 1차 총회에 한국 대표로 김관식(장로교 대표)와 엄요섭(기독교청년 대표)이 참석해 한국기독교연합회(NCC) 가입을 신청한 바 있다. 둘째 접촉면은 세계교회 지도자·신학자들의 한국 방문과 현대 에큐메니컬 신학의 소개를 통해서이다. 일종의 지적 통로인데 1949년 10월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자 미장로교 해외선교부 대표 존 맥카이(J. MacKay)의 한국방문과 장로교청년전국대회에서의 강연, 같은 해 11월 4일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분류되는 에밀 브루너(Emil Bruner)의 한국 방문과 서울 YMCA에서의 강연 등이 있었다. 이 시기는 장로교 내부에서 조선신학교의 ‘에큐메니컬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되던 민감한 시기였다. 셋째 접촉면은 한국전쟁기 구호·복구사업을 통한 미국교회 및 WCC 등 국제기구들과의 접

75) 한국교회의 WCC 인식과 접근에 대한 각각의 특징과 내용은 정병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향한 비판의 근거에 대한 고찰」 『서울장신논단』 제21집 (2013), 195~230쪽 참조.

76)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 성격 형성에 대해서는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교회의 성격에 미친 영향」 『기독교사상』 제438호 (1995), 10~18쪽 등 참조.

축이다. 전쟁의 특수상황임을 감안 하면 한국 구호사업은 WCC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sup>77)</sup> 무엇보다 전쟁기 복구·구호사업은 전쟁으로 파괴된 선교지 복구·재건 목적이 중요 동기가 되었다.<sup>78)</sup> 넷째, 1954년 미국 에반스톤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2차 총회와 한국교회 관계이다. 이 대회에 한국교회 대표로 김현정, 명신흥, 유호준 등이 참석하였으나 이미 전쟁 중 WCC 용공론이 한국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었다. WCC 용공성 논란의 직접 배경에는 헝가리, 체코, 중공 등 공산 진영 교회들의 WCC 가입문제로 근본주의 계열의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 ICC)로부터 용공 단체 공격을 받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sup>79)</sup> 국내적으로는 한국전쟁기 밥 피어스, 빌리 그레이엄 등 미국 근본주의 또는 보수계열 전도자들의 대규모 전도 집회가 ‘반공=구국=승전=구원 논리’를 강화 시킨 요인도 컸다.<sup>80)</sup> 이상에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77) 한국전쟁기 외원단체 구호활동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김홍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3호 (2005), 97~124쪽;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서울: 한울, 2015); 윤정란, 「한국전쟁 구호물자와 서북출신 월남기독교인들의 세력화」 『승실사학』 제34호 (2015), 295~340쪽; 장금현, 「외원단체 연합회의 설립과정과 특성」 『대학과선교』 제48집 (2021), 65~102쪽 참조.

78) 전쟁기 현지 파견 선교사들의 현장보고가 선교지 재건사업에 중요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병준, 「권세열 선교사의 생애와 한국교회에 남긴 공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5호 (2021), 147~181쪽; 탁지일, 「북미교회의 한국전쟁 이해-미국 장로교회와 캐나다연합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9호 (2013), 281~305쪽 참조.

79) WCC 2차 에반스톤 총회는 기독교 세계 안에 두 세계의 ‘공존(co-existence)’ 문제가 제기된 대회로 구체적인 논쟁은 차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80) 밥 피어스와 빌리 그레이엄 두 인물의 대형 전도집회가 한국전쟁기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미친 종교적·정치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다. 두 인물 밥 피어스와 빌리 그레이엄은 교파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냉전 형성기 미국의 메시아적 아메리카니즘, 메시아적 구원론 전파에 매우 효과적인 전도자들이다. 한

접촉면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내용에서는 WCC=용공론에 압도되어 피상적 수준에서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글은 이 시기 상황을 잘 보여 준다.

W.C.C(세계기독교협의회)는 벌써부터 조직이 되어 활동해 왔고 한국장로교회에서도 1949년(1948년 오기-논자) 화란 아스텔담에서 W.C.C 총회가 모임 때 김관식 목사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정식이 입을 요청해서 국제사정에 어두웠던 한국총회는 가입을 결의했고 1954년에는 미국 에반스톤에서 W.C.C가 모였을 때 김현정 명신홍 목사 2인을 정식대표로 하여 참석하고 돌아와서 신학적 방면 사업적인 면 등 각 분야에 걸쳐 자세한 상태보고를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보고를 해버렸고... 에큐메니칼운동의 정체는 불확실한 그대로 의문에 싸이게 되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사상, W.C.C-신신학과 단일교회운동, 용공(容共)주의 사상을 내포하는 것은 칼빈주의 정통 보수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장로교회에서 지지하고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81)</sup>

여기서 한국교회 근본주의·극우화 배경으로 미국 장로교 근본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한국교회 신학은 모교회인 미국교회(특히 미국 장로교)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열과 통합의 유사 경로를 통과했다. 1930년대 프린스턴신학교의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결과 1929년 신학교(웨스트민스터신학교)와 교단(정통장로교 OPC와 장로교독립선교부) 분립, 뒤이은 칼 맥킨타이어 중심으로 더 강화된 근본주의 성향의 성경장로교회(BPC)와 웨이스 신학교의 설립(Faith theological

---

국전쟁기 밥 피어스,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집회와 ‘반공주의’ 밀착도에 대해서는 Bob Pierce(as told to Ken Anderson), *The Untold Korea Story* (Michigan: Zondervan Pub, 1951); 이병성, 「밥 피어스(Bob Pierce) 선교사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종교와 사회』 제9호 (2021), 51-81쪽 등 참조.

<sup>81)</sup>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회사교회사』(上) (서울: 한국복음문서협회, 1983), 155-156쪽.

seminary)은 한국장로교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sup>82)</sup> 전투적 분리주의·근본주의 성향의 칼 매킨타이어 그룹은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ACCC, 1941)를 결성해 미연방교회협의회(FCC)와 대항했고, 2차대전 이후 세계교회협의회(WCC, 1948.9) 창설에 맞춰 국제기독교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 ICCC, 1948.8)를 결성해 근본주의 운동을 전개했다.<sup>83)</sup> 분리주의, 반지성주의, 성경문자주의 등을 신조로 내세운 매킨타이어 그룹이 한국장로교 근본주의 계열과 밀착되었음은 물론이다. 1950년대 한국교회의 핵심 인물 박형룡의 ‘근본주의’ 이해를 보자.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 만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정의일 것.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sup>84)</sup>

근본주의는 사회문화 변동이 클수록 근본 원리를 강화하는 특징이 있다.<sup>85)</sup> 결과적으로 냉전 형성기 ACCC와 ICCC 계열과 연결된 한국교회는 공산주의는 물론 WCC 에큐메니컬운동, 로마 카톨릭, 미국의 신복음주의(Neo-evangelical) 운동까지 비정통의 영역으로 공격하는 전투적 분리주의 신념을 고수했다.<sup>86)</sup>

<sup>82)</sup> 주강식, 『한국교회와 ICCC』 (부산: 고신대학교대학원 신학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sup>83)</sup> ICCC 조직 배경과 결성, 한국교회 관계 부분은 주강식 위의 논문 참조.

<sup>84)</sup> 박형룡, 「근본주의」 『신학지남』 제119호 (1960), 16쪽.

<sup>85)</sup> 정태식, 『거룩한 제국: 아메리카·종교·국가주의』(서울: 페이퍼로드, 2015) 참조.

<sup>86)</sup> 미국 근본주의 계열에서 파생된 신복음주의는 1942년 초대 회장 해롤드 오켄가(Herold J. Ockenga)를 중심으로 전미복음주의자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를 결성한다. 이들은 근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신복음주의자(Neo Evangelist)로 분류한다. 2차 대전 후 근본주의/복음주의 계열은 부흥

2차대전 이후 미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그리고 미국교회가 냉전의 한 축으로 개발한 ‘도덕적·정신적 자유 개념’이 한국교회 안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신학적 자유주의 계열과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1950년대로 한정했을 때 근본주의 계열이 우세했던 한국교회는 미국·세계교회가 전파한 자유 이념을 WCC=용공론의 렌즈로 왜곡 굴절시킴으로써 ‘반공=자유’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종교 폐쇄성·배타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 V. 결론

1950년대 교단 분리를 지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기는 1960년대 근대화·산업화 이후이다. WCC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제3세계 저개발지역 개발 논리 확장 정책에 따라 인간·사회 개발 논리로 수용하면서 사회선교 부문에서 적극 도입되었다. ‘극우반공’ 성격의 한국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해진 데에는 해방 후 재내한 했던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 및 철수, 그로 인한 선교사 세대교체가 가장 중요했으리라 본다. 즉 일제 말 본국으로 귀환했던 선교사들의 해방 이후 선교지 복귀와 한국교회 영향력 유지는 한반도 분단 지형 안에 보수밀도를 높여 신학적 자유 운동을 억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사적으로는 1960년대 동아시아 냉전 시스템의 작동 변수가 중요했다. 재건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필리핀 등 미국의 상호방위조약 우산 아

---

운동,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한 복음운동을 확장했다. 세계적 부흥사로 한국교회 복음운동에 영향이 지대한 빌리 그레이엄도 신복음주의 계열로 분류된다.

래 동북아시아 정치군사적 반공전선 구축은 필연적으로 ‘아시아 자유 반공’ 이념 효과를 필요로 했거나 증대시켰다. 냉전 형성기 미국교회가 ‘자유모럴’로 미국의 새로운 세계 방향을 제시했다면 1960년대 자유·반공 질서 일원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공산주의와의 체제 우위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사회운동은 WCC 지원 하에 소수 교단,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WSCF)의 아시아 지역 기구들, KSCF, EACC의 후신인 아시아교회협의회(CCA), 기독교 지식인 그룹 중심으로 인간·사회·도시 개발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 한국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저항이 사회선교 부문, 특히 노동과 인권운동으로 확산된 데에는 에큐메니즘 본래의 ‘본원적 자유’ 강조와 ‘인간개발’ 요인이 작동한 동아시아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교회 주류 안에 WCC 인식은 1950년대 형성된 주요 범주들이 여전히 위력으로 남아 있다.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반공 규율’로 내면화된 분단 지속성의 현주소일 것이다.

■ 접수: 2022년 10월 31일 / 심사: 2022년 11월 27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일

## 【참고문헌】

- 강인철, 『시민종교의 탄생-식민성과 전쟁의 상흔』,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2018.
-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서울: 선인, 2016.
-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한국전쟁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리차드 쇼울, 김천배 역, 『革命과의 對決』,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 마크 A. 놀 지음, 최재건 옮김, 『미국·캐나다 기독교 역사』, 서울: CLC, 2005.
-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서울: 한울, 2015.
- 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회사교회사』(上), 서울: 한국복음문서협회, 1983.
- 정태식, 『거룩한 제국 : 아메리카·종교·국가주의』, 서울: 페이퍼로드, 2015.
- 존 피츠미어 지음, 한성진 옮김, 『미국장로교회사』, 서울: CLC, 2004.
- J.C. 베넷 저, 김재준 역, 『共產主義와 基督教』, 서울: 선경도서출판사, 1949.
- M. M. 토마스, 이장식 역, 『아시아 혁명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Bob Pierce(as told to Ken Anderson), *The Untold Korea Story*, Michigan: Zondervan Pub, 1951.
- Dianne Kirby, *Religion and the Cold Wa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2.
- Edited by W.A. Visser' T Hooft, *The First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SCM Press Ltd, 1949.
-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Message and Findings*, the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 Ohio Cleveland, March 8-11, 1949.
- Rajah B. Manikam edis., *Christianity and the Asian Revolution*, NY, 1954.
-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Minutes and Reports of the Fifth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Lucknow(India), Dec. 31, 1952~Jan 8, 1953.
- The Executive committee of FCC, *The Churches and American Policy in the Far East*, Dec 6, 1949.
- the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and Goodwill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Message and Findings, the third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 March 8-11, 1949.

the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Justice and Goodwill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Report of the Fourth National Study Conference on the Churches and World Order*, Cleveland, Ohio October 27-30, 1953.

The 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 *The Church in East Asia, December 3-11, 1949*.  
William Inboden, *Relig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1945-196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2008.

- 김홍수, 「한국전쟁과 세계교회협의회, 1950~1953」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4호, 2001, 107~144쪽.
- 김홍수, 「한국전쟁 시기 기독교 외원단체의 구호활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3호, 2005, 97~124쪽.
- 노치준, 「한국전쟁이 한국교회의 성격에 미친 영향」 『기독교사상』 제438호, 1995, 10~18쪽.
- 박형룡, 「근본주의」 『신학지남』 제119호, 1960, 16쪽.
- 안재웅,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제696호, 2016, 61쪽.
- 윤정란, 「한국전쟁 구호물자와 서북출신 월남기독교인들의 세력화」 『송실사학』 제34호, 2015.
- 이병성, 「밥 피어스(Bob Pierce) 선교사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종교와 사회』 제9호, 2021, 51~81쪽.
- 장금현, 「외원단체 연합회의 설립과정과 특성」 『대학과선교』 제48집, 2021, 65~102쪽.
- 정병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향한 비판의 근거에 대한 고찰」 『서울장신논단』 제21집, 2013, 195~230쪽.
- 정병준, 「권세열 선교사의 생애와 한국교회에 남긴 공헌」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5호, 2021, 147~181쪽.
- 탁지일, 「북미교회의 한국전쟁 이해-미국장로교회와 캐나다연합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9호, 2013, 281~305쪽.
- 한강희, 「토모혼에서 자카르타까지: 21세기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선교 신학의 주제와 이슈」 『선교와 신학』 제38집, 2016, 272쪽.

## Cold War and Religion; Expansion of Ecumenism and Establishment of 'Free Morals' in East Asia After World War II

Koh, Jisoo (Korea Democracy Foundation)

This study approaches the influence of the concept of “free moral” led by the U.S. church on the East Asian decolonization and revolu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far-right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cess of spreading ecumenism in the world church during the Cold War. The study examines the geopolitical effect of ‘free moral’ during the Cold War formation in three dimensions. First, the discussions on the “New World Order,” which were raised mainly by the Federal Council of Churches (FCC) at the end of World War II, are examined as a relationship of “free-moral,” Christianity, the pillar of the Free World, and the idea that “spiritual and moral world equals freedom” conceived by the American Church provided civil and religious legitimacy for U.S. policymakers to approve the world as a block of good and evil, freedom and dictatorship, and democracy versus communism during the Cold War. Second, post-World War II decolonization processes, independence and revolution processes across Asia include resistance to Christianity which symbolized old system and imperialism, a return to traditional religion, Asian nationalism, and radical social reform. As a colonial and missionary supervisor, the Western Church responded to Asia’s radical revolution by providing a “New Asia” initiative based on Western “freedom moral” in the process of readjusting the existing missionary system. Specifically, the goal of defending the communist revolution was

presen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Christian Conference (EACC) in 1949. Third, The study approaches the point in which the ecumenical theology of the World Church meets Korean churches that experienced division and war as a freedom refraction relationship.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Protestant phenomenon in which the concept of “freedom,” the principle of order in the free world during the Cold War, is refracted into the far-right political ideology in the divided terrain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World War II, Ecumenism, Free Moral, Federal Council of Churches, World Council of Churches, East Asian Council of Churches, Korean War and far-right anti-communism.

---

**고지수 (Koh, Jisoo)**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현대사를 전공하였고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 인물, 사건, 주요이념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냉전기 한미관계 흐름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한계 요인을 ‘냉전 자유주의’ 개념으로 연구하고 있다.